

참여자 지향적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 연구

장광희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빙조교수

An Empirical Study for Developing a Participant-Oriented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Program

Kwang-Hee Jang^a

^a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South Korea

Received 30 Aug 2019, Revised 16 Sep 2019, Accepted 24 Sep 2019

Abstract

With the decline in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and the increase 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the university began to be interested in starting a business. Under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the start-up support project was reflected in the university's educational programs, which led to the university students receiving various start-up support benefits.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ariou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programs were applied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start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willingness to start up increased.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are increasing.

The increase of university student start-up companies is taking place i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environment within the university, and the support of university, community,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for university student start-up,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rt-up ecosystem, is paying off.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based o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in place. The university supports the entire business process from idea development, such as start-up classes, start-up club support, patent application support, prototype development support, and investment linkage. However, there is a university that develops and operates a unique program for each school and a university that does n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hat can produce efficient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start-up program of the university to be the consumer-centered start-up support.

Keywords: Entrepreneurship-related Education Programs,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Business Process

JEL Classifications: M10, M13, M19

First Author, E-mail: khjang@hit.ac.kr

© 2019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국내 창업시장은 ICT와 융합기술의 접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로봇 기술의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으면서 새로운 인재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교육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 맞춰 청년 대학생의 창업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교육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수의 급감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의 신입생 수는 2012년 681,616명에서 2018년 547,740명으로 줄어 대학입학정원 보다 약 9천명이 적고,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3년에는 397,998명으로 대학생입학자원이 40만 명으로 급감해 대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생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미래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생 취·창업 정책 기조에 맞춰 대학에서도 다양한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이 적용하여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 창업지원의 결과 대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창업과 전공융합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대학생 창업 기업 수는 1,503개로 2016년 1191개 보다 312개(26.2%)가 증가했고, 매출(40.5%), 고용(12.0%)¹⁾로 증가하여 대학생 창업기업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 창업기업의 증가는 대학 내 창업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창업생태계의 시작점인 대학생 창업에 대한 대학

과 지역사회,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지원, 특허출원 지원, 시제품 개발지원, 투자연계 등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어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창업 지원 의지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학생창업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프로그램의 선행 연구와 창업 인프라, 창업교육의 실태조사 자료, 창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기존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대학생 창업 관심도와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적용 시기 등 운영 현황을 실증 분석해 대학의 효율적인 창업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적 정의,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의 선행연구와 창업 인프라조사, 창업 교육프로그램 조사, 창업 교육 대상자 특성 조사 등 2017년, 2018년 연차 조사 자료를 통해 실태 분석을 수행하였고, 대전지역 1학년~4학년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창업인식과 관심도, 창업 프로그램 참여 수요, 창업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을 실증분석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창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언하였다.

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2/83166/>

II. 이론적 선행연구

1. 대학 창업교육의 선행연구

1) 창업교육의 정의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성공적인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의 교육함으로서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다. 창업교육의 선행연구는 Béchard and Toulouse (1998)의 연구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정형화된 교육을 창업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Lackéus (2015)는 창업교육은 기업가 교육(Enterprise Education)과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가교육은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역량 개발, 사업가 마인드 함양, 기술 개발 능력 등 광범위하게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가 교육 중 벤처 및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 교육, 기업가정신교육 등 용어의 혼재를 막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그 개념을 통일하였고, 이후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Jang Kwang-Hee, Ki-Chang Yoon and Won-Il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중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의 차이가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가의 특성 연구에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여 창업교육 서비스품질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창업교육의 중요성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Kim Moon-Hee (2016)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단계인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져왔지만 근래에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적절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고 하였다.

Lim Jung-Jin, Deok-Seop Shim and Hyung-Jin Kim (2016)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기업가 지향성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업성과와의 직접효과를 검증하여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며, 하나는 경제적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적 회복력 증가, 사회 전체 차원의 효과와 개인의 성장, 학교 참여의 확대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청년층 고용문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왜곡, 청년의 구직 자신감 결여에 따른 구직 포기 현상, 사회적 만족감 하락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패 없는 창업,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대학 창업 교육 인프라 실태

1) 학생 창업지원 현황

국내 창업교육은 1980년대 들어와서 몇몇 대학에서 창업 관련 과목이 개설되면서 국내에 도입 되었고, 1990년 이후 창업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었으며 2004년에 중소기업청이 전국 5개 권역에 국책 창업대학원을 설치하면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 (Kwon Young-Tae, 2017).

학생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창업지원금과 창업 전용공간, 창업 전담인력 현황으로 지원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데 창업진흥원 (2019)의 창업통계분석에서는 창업지원금은 2016년과 2017년을

Table 1. University Startup Support Funds

(Unit: Million Won, %)

	2016 Y			2017 Y			Variation	
	School expenses	National expenses	Total	School expenses	National expenses	Total	금액	Ratio
Univ.	22,047	88,960	111,007	31,336	128,859	160,195	49,188	44.3
College	2,089	10,909	12,998	2,392	11,672	14,064	1,066	8.2
Total	24,136	99,869	124,005	33,728	140,531	174,259	50,254	40.5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Table 2. University Startup Dedicate Area

(Unit: m², %)

	2017 Y		2018 Y		Variation	
	Total Area	Univ.	Total Area	Univ.	Area	Ratio
Univ.	126,204	876.4	130,543	882.1	4,339	3.4
College	21,928	252.0	18,451	205.0	-3,477	-15.9
Total	148,132	641.3	148,994	626.0	862	0.6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Table 3. University Startup Dedicated Staff

(Unit: m², %)

	2017 Y		2018 Y		Variation	
	Total Area	Univ.	Total Area	Univ.	Area	Ratio
Univ.	407	864	1,271	4.4	450	990
College	130	207	337	1.7	142	199
Total	537	1,071	1,608	3.3	592	1,189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분석하였고, 전용공간과 전담인력은 2017년, 2018년 분석하였다.

창업지원 중 창업지원 금액은 2016년 1,240억 원에서 2017년 1,743억 원으로 약 40.5%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은 2016년 대비 교비 지원금이 42.1%로 증가하였고, 외부지원도 비슷한 수준인 44.9%로 증가하였으나, 전문대의 경우

교비 지원금이 14.5% 증가한 반면, 외부지원은 7.0% 증가하는데 그쳤다. 창업지원금의 지원에서 전문대의 교비 및 외부지원이 4년제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중 창업지원 전용면적은 2017년 148,132m²에서 2018년 148,994m²으로 약 0.6%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은 2017년 대비 3.4%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의 경우 15.9%로 오히려 줄었다. 전문대의 창업전용 면적의 감소는 4년제

Table 4. Entrepreneurship Course Operation

(Unit: amount, %)

Course operation		2016 Y		2017 Y		Variation	
		Operation	Ratio	Operation	Ratio	Amount	Ratio
Course operation	Univ.	181	66.3	182	67.4	1	1.1
	College	132	88.6	131	88.5	-1	-0.1
	Total	313	74.2	313	74.9	0	0.7
Number of courses		Amount	per Univ.	Amount	per Univ.	Amount	Ratio
	Univ.	5,534	30.6	6,063	33.3	529	2.7
	College	4,927	37.3	5,765	44.0	838	6.7
	Total	10,461	33.4	11,828	37.8	1,367	4.4
Attendance		Persons	per Class	Persons	per Class	Amount	Ratio
	Univ.	231,458	41.8	240,200	39.6	8,742	-2.2
	College	154,113	31.3	169,833	29.5	15,720	-1.8
	Total	385,571	36.9	410,033	34.7	24,462	-2.2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대학에 비해 창업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전용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중 창업지원 전담인력은 2017년 1,608명에서 2018년 1,781명으로 약 10.8%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은 2017년 대비 13.3%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의 경우 1.2%로 증가하여 전문대의 창업 전문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전담인력의 경우 4년제 대비 1/4 수준으로 전반적인 창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 창업강좌 지원현황

창업강좌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교과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를 말한다 (Kwon Young-Tae, 2017).

각 대학은 정규교과의 창업교과목 개설, 비정규교과로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캠프 개최,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의 통계조사에서는 4년제 대학교 273개, 전문대 149개가 참가해

총 422개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창업강좌는 창업교육지원의 가장 기본 프로그램으로 참가대학 422개교 중 74.2%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특이점은 4년제 대학 보다 전문대학이 개설율이 더 높게 나왔다. 2017년 4년제 대학의 창업강좌 개설은 67.4%인 반면 전문대의 창업강좌 개설율은 88.5%로 더 높게 나왔다. 대학의 창업지원과 창업교육에 있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강좌 수로 창업교육지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학교당 37.8개 강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창업강좌 개설여부에서 본 것 같이 전문대학의 개설 강좌 수가 44.0개로 4년제 대학 33.3개 보다 더 개설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의 창업강좌 인원수 조사에서 2017년 한강좌당 34.7명으로 4년제 대학 39.6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2.2% 감소하여 한 강좌 당 담당 학생 수가 적절하게 줄었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2016년 31.3명에서 2018년 29.5명으로 줄어 양질의 교육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University Startup Major or General Education Class

(Unit: amount, %)

Start-UP Course		2016 Y			2017 Y			Variation	
		MC ²⁾	GEC ³⁾	Total	MC	GEC	Total	Total	Ratio
Univ.		2,648	2,886	5,534	4,852	1,211	6,063	529	9.6
		47.8	52.2	100.0	80.0	20.0	100.0		
Major or General	College	2,704	2,223	4,927	4,497	1,268	5,765	838	17.0
		54.9	45.1	100.0	78.0	22.0	100.0		
Total		5,352	5,109	10,461	9,349	2,479	11,828	1,367	13.1
		51.4	48.7	100.0	79.0	21.0	100.0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Table 6. Founding Club Operation

(Unit: amount, %)

Operation		2016 Y		2017 Y		Variation	
		Total	Ratio	Total	Ratio	Amount	Ratio
Operation	Univ.	152	55.7	160	59.3	8	5.3
	College	116	77.9	123	83.1	7	6.0
	Total	268	63.5	283	67.7	15	5.6
Number of clubs	Univ.	4,202	27.6	4,451	27.8	249	5.9
	College	1,266	10.9	1,145	9.3	-121	-9.6
	Total	5,468	20.4	5,596	19.8	128	2.3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Hong Hyo-Seok, Byung-Moon Seol (2013)의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기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도 필요하다. 창업자가 창의력, 혁신능력, 기술 노하우, 경영 노하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지원이 필요하고 하였다.

비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동아리를 지

원하는 학교는 전체 422개교 중 67.7%인 283개교로 조사되었으며, 4년제 대학교는 59.3%인 160개교, 전문대는 83.1%인 123개교가 지원하고 있다. 창업교육에 있어서는 창업강좌 지원과 같이 전문대학교가 적극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5.6%인 15개교가 새롭게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동아리 수로 보면 2017년 5,596개로 학교 당 19.8개를 운영하고 있고 2016년 비해 128개(2.3%) 늘어났고, 4년제 대학은 학교당 27.8개로 전년대비 249(5.9%)가 늘어났는데 전문대

2) MC: 전공강좌(Major Class)

3) GEC: 교양강좌(General Education Class)

Table 7. Entrepreneurship Contest

(Unit: amount, %)

Contest		2016 Y		2017 Y		Variation	
		Total	Ratio	Total	Ratio	Amount	Ratio
Contest	Univ.	144	52.7	155	57.4	11	7.6
	College	99	66.4	101	68.2	2	2.0
	Total	243	57.6	256	38.8	13	5.3
Number of Contest	Univ.	381	2.6	447	2.9	66	17.3
	College	156	1.6	150	1.5	-6	-3.8
	Total	537	2.2	597	2.3	60	11.2
Number of Camp	Univ.	572	4.3	629	4.2	57	10.0
	College	152	1.8	145	1.6	-7	-4.6
	Total	724	3.4	774	3.3	50	6.9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Table 8. Student Entrepreneurship Status

(Unit: amount, %)

	2016 Y				2017 Y				Variation	
	Founder		Company		Founder		Company		Founder	
	Total	Univ.	Total	Univ.	Total	Univ.	Total	Univ.	Amount	Ratio
Univ.	1,096	8.2	978	7.4	1,385	9.7	1,226	8.6	289	26.4
College	232	3.7	213	3.4	299	4.0	277	3.7	67	28.9
Total	1,328	6.8	1,191	6.1	1,684	7.8	1,503	6.9	356	26.8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학은 학교 당 9.3개로 2016년 대비 오히려 1.7개(9.6%) 감소하여 전문대의 창업동아리 참가학교는 늘어나는 반면 참가 동아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지원 중 비교과지원으로 창업경진대회 운영대학 현황을 보면 2017년 전체 422개교 중 256개가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개가 증가하여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2017년 155개(57.4%) 대학이 창업경진대회를 운영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 101개 학교로 전체 68.2%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지원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진대회 개최 횟수로 보면 2017년 학교 당 2.2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에 비해 11.2% 늘어났으며 4년제 대학은 학교 당 2.9번, 전문대는 1.5번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비해 4년제 대학은 17.3%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의 개최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캠프 개최 횟수로 보면 2017년 학교당 3.4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에 비해 6.9% 늘어났으며 4년제 대학은 학교 당 4.3번, 전문대는 1.6번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비해 4년제 대학은 10.0%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의 개최 건수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생 창업 현황

경기 둔화 속에서 대학생 창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대학생들의 창업인식에 대한 개선으로 학생창업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 창업자와 학생 창업기업을 2016년과 2017년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학생창업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684명이 창업하였고 4년제 학생이 1,385명, 전문대 학생이 299명(40.0%) 창업했는데 2016년에 비해 26.8% 늘어났으며 4년제 대학은 26.4% 증가, 전문대는 67명 증가로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창업자가 빠르게 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경우도 2017년에 1,50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1명 늘어났다. 학생 창업기업 수에서도 2017년 1,503개 창업해 2전년도에 비해 356명(26.8%)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으며 4년제 대학도 1,226개로 전년대비 248개(25.4%) 늘었으며, 전문대의 경우 277개로 전년

도에 비해 64개(30.0%)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창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최근 정부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은 대학구조개혁사업,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창업선도대학사업 등 특성화되고, 전문화를 위한 대학 생태계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창업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잠재성장을 저하와 청년실업 급증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역량 강화와 창업성장기반 구축 등 예비창업단계에서의 지원이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즈쿨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창업강좌 운영, 창업선도대학 지원, 청년창업인턴제, 창업보육센터 지원, 재택 창업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won

Table 9. University Startup Friendly Program

(Unit: amount, %)

		2016 Y		2017 Y		Variation	
		Operation	Ratio	Operation	Ratio	Amount	Ratio
Leave of Absence	Univ.	139	50.9	144	53.3	5	2.4
	College	78	52.3	88	59.5	10	7.2
	Total	217	51.4	232	56.4	15	5.0
Substitution	Univ.	72	26.4	86	31.9	14	5.5
	College	33	22.1	38	25.7	5	3.6
	Total	105	24.3	124	28.8	19	4.5
Scholarship	Univ.	59	21.6	63	23.3	4	1.7
	College	8	5.4	10	6.8	2	1.4
	Total	67	13.5	73	15.1	6	1.6
Talent	Univ.	14	5.1	8	3	-6	-2.1
	College	0	0	0	0	0	0
	Total	14	2.6	8	1.5	-6	-1.1
Credit Exchange	Univ.	68	24.9	67	24.8	-1	-0.1
	College	17	11.4	19	12.8	2	1.4
	Total	85	18.2	86	18.8	1	0.6
Connection	Univ.	60	22	66	24.4	6	2.4
	College	5	3.4	5	3.4	0	0
	Total	65	12.7	71	13.9	6	1.2

Resource: 2018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2019)

Young-Tae, 2017)

예비창업 단계의 경우 창업교육의 중심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대학에 다양한 지원제도와 학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 중심의 학사제도를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라고 하는데,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는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장학금,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창업학과 및 창업연계전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원활한 창업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제도이다.

창업휴학제는 휴학사유가 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휴학할 경우 대학이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할 수 있는 학사제도로 대학의 학칙 개정으로 도입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들은 2학기~4학기까지 창업 기간 뿐 아니라 창업 준비기간도 창업휴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진흥원(2019)에서 2018년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418개교(대학교 270개, 전문대학 148개)를 대상으로 대학창업통계를 작성하였다. 대학창업통계에 의하면 2017년과 2018년의 창업친화적 학사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세부적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비교 분석하였다.

창업휴학제는 전문대학은 2018년 56.4%가 운영하고 있고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창업대체학점제는 28.8%가 운영하여 2017년 대비 4.5%가 증가하였고, 창업장학금제는 15.1%가 운영하고 있고 2017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창업특기생 제도는 1.5%가 운영하여 '17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으며, 학점교류제는 18.8%에서 2017년 대비 0.6% 증가하였고 창업학과 및 창업전공연계는 13.9%가 운영하여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였다.

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화적 학사제도의 운영은 창업특기생 입학제를 제외하면 2.4% ~ 9.1%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비교하면 4년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대의 참여비율이 4년제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원제도별로 보면 창업학점대체제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창업특기생제도

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특히 창업휴학제는 4년제보다 오히려 전문대학이 운영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창업특기생제도는 전문대는 한 교도 도입을 하지 않았고, 4년제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향후 창업친화적 학사제 정책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실증 분석

1. 연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교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대학의 창업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고 성별, 연령, 학년을 기반으로 대전시 관내 대학생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대학생은 1학년~4학년을 동일 표본으로 하고 조사 내용을 실증분석 하였다.

응답자는 대전 관내 1학년~4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남자 57.6%와 여자 42.4%로 구성되었고, 창업경험 여부는 91.2%가 창업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응답하였다. 본 응답은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 특강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주로 설문하였기에 창업동아리 경험은 82.5%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창업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응답자의 58.7%의 응답자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의 정도에 따라 18.3%의 응답자는 매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관심의 비율은 29.5% 정도로 매우 무관심한 응답자 비율은 5.3%로 낮은 편으로 보통으로 분포된 학생들의 창업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각 학교마다 창업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은 졸업이 가까워지는 3학년 4학년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창업교육의 성과 측면에서 3학년과 4학년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과 취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응답은 56.3%가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12.5%는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매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1%로 아주 미미해 응답자 전반적으로 창업과 취업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 경험이 취업과정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처럼 대학의 창업교육과 지원을 취업지원의 비중으로 인식하고 취업의 새로운 직업선택의 대안으로 지원 정책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 분야는 요식업(30.5%)로 가장 많고 지식서비스분야(24.3%), 교육서비스분야(18.5), 첨단기술 기반(15.2%), 기타(11.5%)로 분포되어 대학생의 창업 분야에서 기술기반 창업보다는 소상공인창업과 아이디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기술수준과 자금, 경험이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창업관심자 스스로가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창업 가능한 창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과 정부는 학생들의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전공 관련 창업, 4차 산업혁명 응용기술 창업,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응용기술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개발에 집중적인 교육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에 대한 활동은 특별한 창업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52.2%로 절반이상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창업동아리 활동(12.1%), 창업경진대회 참가(11.2%), 창업캠프참가(10.5%), 교내 창업강좌 수강(9.3%), 기타(4.7)로 나타나 대학의 창업교육 노력에도 관심만 가지고 있지 실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창업에 관심 있는 잠재 관심학생을 구분하여 창업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시멘토링, 창업강좌 수강을 독려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업경진대회에 검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교육과 지원에서의 핵심은 창업동아리 가입 건수를 늘려 양적,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창업에 관심에 관심 갖지 않는 응답자는 창업

보다 취업에 관심이 많고(46.3%), 실패에 대한 두려움(18.9%), 아이템이 없어서(12.1%) 등이 가장 컸고 집안의 반대, 기회비용의 투자, 창업 멤버 구성의 어려움, 경영자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분석하여 취업에 대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준비에 대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61.5%),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부족(20.3%),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11.7%), 기타(6.5%)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다양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금의 정보를 창업관심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은 초기 창업비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창업 관련프로그램 인식

창업 관련프로그램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창업강좌, 창업특강, 창업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 연계(클라우드 펀딩 지원,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투자 기관 연계) 등의 직접 지원과 창업휴학제도 등 창업친화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전체 응답자 58.5%가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이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5%에 불과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8.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실제 창업프로그램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에 비해 낮은 참여 의향을 나타낸 이유로 창업을 직접 할 나이는 아니다(36.3%),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26.2),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11.8%),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9.5%) 기타(16.2%)로 나타나 창업의 적정 연령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분석되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순위로는 창업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기술, 특허, 자금 등 사업화 프로그램,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론적 프로그램 보다는 실무적 관점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시 학생들이 가장 고려하는 부분으로 학점 인정여부(26.3%), 프로그램 커리큘럼(22.5%), 창업 정보제공(15.3%), 강사의 전문성(14.5%), 기타(21.4%)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과 병행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점 부여가 창업관련프로그램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은 정부의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발한 창업 지원에 힘입어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이 구체화, 체계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창업지원 노력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해 수요자가 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대학생의 창업관련 프로그램이 인식되지 않는 비율이 58.5%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에 밀려 대학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로 소중한 혈세를 매몰비용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의 지원 의지, 대학의 지원 환경을 고려하고, 전문대와 4년제 등 수 학 기간에 따른 특성, 전공 및 관심 분야에 따른 전공 융합 창업 교육, 대학생 창업과 졸업 후 즉시 창업 등 창업 시기 등 다양한 고려 요인을 분석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창업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관심자의 니즈 분석,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지원 형태, 프로그램 운영 시기, 학생 혜택 등의 프로그램 개발 요소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시기는 졸업을 앞둔 3~4학년에

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학년별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1~2학년은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고도화 등 아이템 개발 등 기초 경영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며, 3~4학년은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제품개발, 마케팅, 투자연계 등에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자의 창업시기에 따라 예비창업,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이후 창업으로 구분하여 창업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강좌형, 참여형, 경험형, 실전형으로 구분하고 강좌형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참여형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개발, 고도화, 사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창업 멘토링, 창업캠프, 시장조사 등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자 학생이 직접 체험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참여형의 경우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동아리 중심으로 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험형 프로그램은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제품 아이디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창업동아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제품 개발, 프로토타입 위킹목업 개발, 양산 초기 제품 개발, 특허 출원 지원 등 사업화에 초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전형은 대학생 창업, 졸업 후 즉시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지원으로 소비자 반응 조사, 테스트베드 운영, 마케팅 전략 실행, 고객 개발, 정부지원 사업 참여 등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차원의 지원을 넘어 창업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야 한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창업의도를 높이는 만

큼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관계를 위해서는 창업 참여자 지향적인 창업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프로그램의 인식과 창업프로그램 운영실태, 창업 지원 인프라에 대

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창업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의 창업교육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échar, J. P. and J. M. Toulouse (1998), "Validation of a Didac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317-332.
- Cho, Ji-Hye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 229-251.
- Choi, Uk-Hee, Jong-Hee Kim and Nam-Hyun Kim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a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Go, Hye-Lim and Chang-Nam Hong (2016), "Effect Analysis of Short-Term Start-up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on Management*, 19(1), 67-68.
- Hong, Hyo-Seog and Byung-Moon Seol (2013),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s' Business Incubation Club on Youth Start-ups",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8(2), 141-151.
- Jang, Kwang-Hee, Ki-Chang Yoon and Won-Li Lee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Preliminary Founder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0(5), 41-52.
- Lackéus, M. (2015),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 What, Why, When How*, OECD Report, 6-45.
- Kim, Moon-Hee (2016), "Trends and Cases of OECD Discussion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HRD Review*, 104-122.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ISED) (2019), *2019 University Start-up Statistics Findings Report*, Daejeon: Author, 1-38.
- Kwon, Young-Tae (2017), *A Study on the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in Domestic Universities* (Master's Thesis), Bu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13.
- Seo, Chan-Dong (2019, February 11), "1,503 Startup Students: MBN", Available from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2/83166/> (Accessed February, 11)
- Lim, Jung-Jin, Duk-Sup Shim and Hyung-Jin Kim (2016), "The Effect on C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the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7(2), 77-92.